

안녕하십니까? 김원중입니다. 이번에는 제9강 때로는 돌아가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언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좋아하십니까? 전쟁도 정면으로 충돌하기보다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우회 전략이 필요하다고 손자는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자는 그것을

우직지계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직지계는 구불구불할 우 자, 곧바를 직 자입니다. 즉, 구불구불하게 가는 것이 바로 직공

하는 거 즉,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는 더 우위에 서기 위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치 먼 길을 돌아가면서도

곧바로 가는 것보다 더 빠르고 또 돌아가는 길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 발 물러나 있다가 다시 빙빙 돌아가면서 그 고지를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손자가 얘기하는 우직지계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손자는 군쟁편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자는 군쟁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먼 길로 돌아가면서도 곧바로 가는 것처럼 하고, 근심거리를 이로움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길을 구불구불 가는 것처럼 하여 적을 미끼로 유인하면 나중에 출발한 군대가 먼저 도착하는 것이니 이는 '먼 길로

돌아가면서도 곧바로 가는 것처럼' 하는 계책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즉, 결론은 뭘니까? 먼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해서

상대편의 의표를 찌르는 것. 이것이 바로 군쟁편에서 우직지계라고 말한 손자의 본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진나라, 춘추시대 때 진나라 현공이요. 현공이 대단히 전쟁을 잘했죠. 그런데 주변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픽나라를 공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픽나라는 현공이 봤을 때 꼭 점령을 해야만 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막상 그 사이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우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나라가 있는데 현공이

픽나라를 공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나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간에 있으니까 픽나라를 공격했다가

우나라의 기습공격이라든지 우나라가 진나라를 또 빈틈을 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픽나라를 공격하면서

우나라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하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랬더니 신하인 순식이 이런 제안을 하죠. 대왕, 수국에서

나오는 옥과 굴 땅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을 우공에게 바치시면 됩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현공은

의심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는 패물만 받고 길을 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했더니 순식이 하는 말이

바로 우나라 임금은 탐욕스럽고 욕과 말에 관심이 많아서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받고 길을 빌려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순식의 제안에 따라서 결국은 그 말과 욕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우나라

임금한테도 충신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충신이 궁지기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궁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면 대왕,

절대 이것을, 이 패물을 받지 마십시오. 바로 마치 예를 들어서 수레에 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한테 즉, 우나라한테 꺾나라가 있는 것은 수레에 달려 있는 보, 짐을 싣는 보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허락하면 안 됩니다. 즉, 꺾나라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치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과 똑같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허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바로 욕과 말에 빠져 있던 우나라 임금이 그것을 빌려줬습니다. 즉, 그걸 받고선 그 길을 빌려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현공이 그 우나라를 통해서 꺾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3년 동안

꺾나라 땅을 다스리다가 오는 길에 거기 꺾나라 땅의 수많은 병력과 물자 같은 걸 다 입수했잖아요. 그래서 오는 길에

우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나라 공격해서 우나라를 다 손아귀에 넣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비록

말의 나이는 늘었지만 욕은 그대로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현공이 우나라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즉, 꺾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우직지계의 전형을 보여준 거죠. 바로 길을 빌려달라는 명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두 나라를 다 한꺼번에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우직지계의 사례는

직언보다는 풍자나 우언을 통해서 한 외교관의 말에서도 느껴집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보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제나라 때 순우곤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순우곤은 일명 요즘 말하면 개그맨 정도 되는 그러니까 말을 대단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순우곤이 워낙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말도 잘하니까 그 당시 제나라 왕이 순우곤에게 고니라는

것을 주면서 자네는 이걸 가지고 초나라에 찾아가서 초나라 왕에게 이 고니를 선물하고 이 선물을 통해서 초나라랑

우리나라랑 동맹관계를 맺도록 해오게라고 하면서 새장 속에 고니를 한 마리 주어서 결국 보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순우곤이요. 길을 가다가 물가를 지나가는데 고니가 목이 말라 하니까 새장의 문을 확 열었다가 고니가

획 날아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순우곤이 빈 새장을 들고

다시 제나라 왕한테 갈까 생각하다가 아니지.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빈 새장을 가지고 가서 초나라 왕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나라 왕께서 신에게 고니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물가를 지나는데 고니가 목말라 하는 걸 보고

새장에서 꺼냈더니 날아가버렸습니다. 목숨을 끊을까
생각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우리 왕을 보고 새 때문에 선비가

목숨을 끊도록 했다고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른 고니를 사 올까 생각했습니다만

이것은 신의 없는 행위로 우리 왕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만 두 나라

사이의 왕래가 끊길까 봐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을 자백하고 왕께 벌을 받으려고 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기 골계열전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바로 순우곤은 이 고니를 잃어버리고 나서 결국은 다시

제나라로 가려고 했다가 이런 말, 이 3가지 말을 통해서
초나라 왕에게 분명하게 자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순우곤이 얘기한 의도는 분명한 거죠. 이렇게 나라는 사람은
당신에게 사실대로 얘기했으니까 당신의 처분을 바르게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초나라 왕이
감탄했습니다. 아니, 제나라에 이런 훌륭한 선비가 있다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벌을 내리지 않고 순우곤에게 칭찬하고 상을
내리면서 제나라와 초나라가 동맹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순우곤이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고 직언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말을 했다면

아마 초나라 왕이 분명히 화를 내고 노여워해서 절대
동맹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상사와
이야기할 때 또는 상사에게 아부를 많이 합니까? 직언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아부라는 말이 좀 귀에 거슬린다면 고품격
아부라고 하죠. 예컨대, 공자께서도 군주에게 자주 간언하면

욕을 당하고 친구에게도 자주 충고하면 멀어진다고 논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즉, 직언은 가능한 한 금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파괴력이 대단하죠. 즉, 상사는 또는 직장에서

윗사람은 그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상대방의 태도를 본다고
하죠. 일 처리 할 때 위험하고 나에게 불리한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덜 위험하고 멀지만 나에게 유리한 것을
택할 것이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충돌을 피하면서 상대가 감정을 상하지 않는
그런 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